



Global Goings-on

호 주

모두가 승자인 호주의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Super-duper supers

- ▶ 호주에서의 지난 20년간의 개혁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진행됐던 게 아닌 만큼 저항세력을 달래기 위한 사탕이 필요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Superannuation
 - 축약된 표현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호주인들은 이 민간연금제도를 Super라고만 불러
 - 원래 Super는 1970년대와 80년대 노동조합원들을 달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 ▶ 1992년 Keating 정부는 모든 고용주들에게 고용인의 임금 일부를 super 계정에 불입하도록 의무화 해
 - 세금 공제가 되는 연금 기여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 오늘날은 피고용인 소득의 9%이며 2019년 12%까지 오르도록 되어 있어
 - 피고용인들은 불입금을 관리할 펀드를 선

택할 수 있어

- ▶ 전체 수가 약 8백만이 넘는 대부분의 호주 근로자들은 이제 은퇴 후의 비축금을 갖게 된 셈
 - 연금에서 돈을 찾아가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을 일괄적으로 받거나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

- ▶ 이로 인해 퇴직 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연금시스템과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벼워져
 - 이는 공공연금 수령자격이 자산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
 - Super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퇴직자들의 소득보장은 확정기여방식으로 이루어져
 - 따라서 호주는 고령인구가 연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염려할 게 없어

- ▶ Super로 인해 저축률이 올라가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Super가 단위노동비용을 올리지도 않아
 - 오히려 Super는 Super가 없었다면 호주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대한 자본을 창출해 내
 - 총 자산 규모 1조3천억 달러로 호주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연금시장으로 만든

공신

- 자산의 약 40%는 호주에 투자되어 있지만 투자처 선정은 자유로운 만큼 현재 전 세계 투자 매니저들이 몰려 들어 호주 금융 서비스 산업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2011년 5월 26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8719616?story_id=18719616>

영국

보건의료 개혁

급진적 개혁주의자 David Cameron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Health-care reform

Whatever happened to Radical
Dave?

- ▶ 뒤늦은 자문을 거친 정부의 수정된 NHS (National Health Service) 개혁안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수정안의 골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NHS 내부의 잡음과 연합내각의 다른 긴급한 문제들로 인해 Cameron 내각이 원래 계획했던 개혁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
 - 개혁의 핵심이었던 경쟁 도입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

- ▶ 대부분의 부유국들은 평균수명의 상승, 급속한 기술 진보, 인터넷을 통해 영생을 위한 처방전을 다운받고 있는 환자들의 끊임없는 욕구로 인해 점점 오르고 있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삼고 있는 영국 NHS의 전국민의료보험가입 모델은 다른 나라의 모델보다는 저렴한 편(미국은 GDP의 16.2%가 의료비에 소비되는 반면 영국은 GDP의 9.3%)

- 비록 Cameron 총리가 이번 정부 재정예산 삭감에서 NHS는 제외했으나 NHS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향후 4년간 320억 달러를 절감해야 해

- ▶ 지난 해 영국정부는 NHS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계획을 세워

- 그 하나는 민간 의료기관 및 봉사단체들이 보다 많은 NHS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과 경쟁을 도입하려 한 것

- 토니 블레어 내각은 NHS를 공공이 운영하는 독점시장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 했으며 Gordon Brown 내각이 이 개혁을 무디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음.

- London School of Economic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생산성이 올라 1년에 3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

- ▶ 그러나 일부 투표자들은 민간이 의료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부의 보건 의료 재정지원이 끝날 것이라고 오해해

- 이에 따라 정치인들에게도 NHS 경쟁도입에 반대할 정치적 인센티브가 생겨
- 결과적으로 수정안은 경쟁도입에 대한 기존의 열정을 버려
-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 접근법이었던 경쟁도입은 이제 언저리 기술로 머무르게 돼

▶ 또 다른 하나는 NHS 내에서 2차 진료에 위탁되는 방식과 관련 있어

- 정부는 이 위탁과 관련된 책임을 2013년까지 GP(가정의)에게 이전해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꺼풀을 벗기려 했음.
- 의료진들의 반대와 이에 동조한 대중의 반대로 정부는 이 시도도 포기해야 해

▶ Cameron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대표적 개혁인 NHS 개혁은 환자보다는 정치인들의 손을 들어준 형편 없는 타협으로 끝나

- 효율성을 진작시키고자 했던 변화가 값비싼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2011년 6월 16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8834011?story_id=18834011>

EU

장출혈성 대장균: EU 장관 긴급회의 E.coli outbreak: EU ministers to hold crisis talks

▶ 현재까지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출혈성 대장균의 발생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EU 농업 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던 독일산 콩나물에 대한 첫 실험결과는 음성적
- Hambrug의 남쪽 지방에 있는 Uelzen이라는 농장에서 검출된 40여 샘플 중 23가지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관계자가 말해
- 현재까지 12개국 2,200여명이 이 대장균 감염 증상을 보여
- 독일 외 국가에서 발견된 환자들은 모두 독일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나
- 발생 초기 독일 관료들은 스페인산 오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해

▶ BBC 유럽담당기자인 Chris Morris의 보도에 따르면 발생원인 조사에 대한 EU 시민들의 비판이 드세지는 가운데 Luxemburg에서 열릴 EU 농업 장관회의에서는 대장균의 발생 원인을 발견하는 데 전문가들이 얼마나 가까이 왔나를 확인할 것

▶ 과연 콩나물은 원인이 아닌가?

- 비록 초기 테스트 결과가 음성적이긴 했으나 아직 속단하기는 일러
 - 콩나물이 원인일 수 있다는 증거는 미생물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추적 작업에서 나와
 - 관계자들은 독일 북부 지역의 한 농장에서 판매된 콩나물과 대장균 발생을 연계할 수 있어
 - 확증을 위해 남은 17개의 샘플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 그러나 여기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염된 콩나물이 몇 주 전에 다 팔려 나갔을 것이기 때문
- ▶ 농장의 콩나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콩나물이 유력한 원인 후보
- 그러나 스페인의 오이 농부들도 이런 의심을 받아
- ▶ Chris Morris는 EU 농업장관회의에서는 스페인 농부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다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 스페인은 잘못된 비난으로 인해 스페인의 야채 농부들이 입은 거대한 손실 100%를 독일이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 스페인 과일야채수출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손실은 주당 2억2천5백만 유로에 달해
- ▶ EU 장관회의에서는 대장균 발생에 대한 반응으로 러시아에서 EU의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

2011년 6월 7일 / BBC NEWS

〈원문 링크: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3677348>〉